

6월 항쟁 세대들, 가슴속에서 꺼낸 ‘1987’

뉴스인사이드

영화 ‘1987’ 세 남자, 특별한 사연

김윤석·오달수, 故 박종철 해방고 후배 오달수, 시위하다 붙잡혀 사흘간 유치장 우현, 연대 총학서 이한열 장례식 주도

1987년 1월 일어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로부터 시작된 양심선언과 이어진 6월항쟁 그리고 고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가 영화 ‘1987’에 담겼다. 12월27일 개봉하는 영화는 민주화의 기록제가 된 주요 사건과 그에 얽힌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화려한 스타들이 ‘1987’(감독 장준환·제작 우정필름)에 집결하면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영화에 참여한 배우들 중 특히 김윤석과 오달수, 우현의 감회와 각오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1987년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사건 및 인물과 직접 인연을 맺고 있어서다. 개봉을 앞두고 이들 세 사람의 숨은 사연이 주목받는 이유다.

먼저 김윤석과 오달수는 서울대 재학중 고문을 당하다 사망한 고 박종철 운동가의 고등학교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민주화운동을 그린 ‘1987’의 김윤석(가운데)은 고인의 부산 해방고 2년 후배에서 영화 출연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다.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한 우현(작은사진 왼쪽)은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 집행부로서 고 이한열 열사의 49재 행사를 이끌었다.

사진제공 | 우정필름·우상호의원 페이스북

교 2년, 3년 후배다. 부산이 고향인 이들은 해방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교 졸업 뒤 부산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김윤석과 지역 연극 무대에 오른 오달수는 고교 선배인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엄혹한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김윤석은 “박종철 열사는 고등학교 선배라

서 ‘1987’의 이야기는 나에게 남다르게 다가왔다”며 “물론 그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으로 이번 영화를 택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운동을 하던 그때나 촛불광장에 사람들이 나온 지금이나 우리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화에서 김윤석은 박종철 사망사건 은폐를 주도하는 대공수사처장 역할이다. 반공의식과

권력에 대한 충성으로 뭉친 인물.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불행한 인물이고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오달수 역시 영화 주요 소재인 6월항쟁과 무관치 않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재수생 신분이던 오달수도 광장으로 나섰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그는 3일간 유치장 신세를 진 경험도 있다.

배우 우현은 1987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인물로 통한다. 당시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이던 우현은 총학생회 사회부장을 맡고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함께 한 대학후배가 바로 고 이한열 열사다. 우현은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그해 7월 사망한 고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은 물론 49재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들의 모습이 담긴 당시 사진이 최근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우현은 ‘1987’에서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역할로 출연한다. 이한열 열사도 영화에 등장하는 만큼 연기를 떠나 개인적으로 갖는 의미와 감회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

‘1987’의 장준환 감독은 “배우들 가운데 자신이 직접 겪은 상황과 기억을 간직하고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숫자뉴스

14.3%

28일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마지막 회 시청률이다. 10월9일 6.6%로 시작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끝에 그 두 배가 넘는 시청률로 종영했다. 주연을 맡았던 정려원은 자신의 대표작을 만들었고, 윤현민은 ‘훈남’ 캐릭터로 인기를 모았다. 마지막 회가 자체최고 시청률이어서 드라마는 그야말로 ‘해피 엔딩’이었다.

#해시태그 킷



청순한 수치, 섹시한 레드

언제나 빛이 나는 미모를 과시하는 수치다. 새빨간 립스틱은 매혹적이고, 긴 생머리는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포즈는 깜찍하다. 목에 착용한 초커는 은근 섹시하다. 각기 다른 색깔의 네 가지 매력에 한 장의 사진에 모두 담겨 있어 팬들의 눈을 ‘호강’ 시켜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수치 #빨간립스틱 #매혹미 #월해도예뻐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2016 KBS 연예대상

유머·달변·화제의 인물 연말시상식 MC의 조건

연말 시상식의 꽃은 ‘대상’ 수상자이지만 MC들의 면면도 그 못지않다. 지상파 3사가 한 해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의 성과를 결산하는 축제의 무대에 누가 진행자로 오를지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MC 얼굴에 따라 방송사의 섭외 능력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기에 은근히 자존심 싸움이 되기도 한다.

방송사가 MC 선정에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은 진행능력이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조합이나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MC를 구성할 때 반드시 한 명은 달변가를 투입한다. 생방송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3시간 이상 진행되기에 지루할 틈 없는 유머감각을 지니고 있다면 메인 진행자로서 최적임자다.

아울러 한 해 방송사에 대한 기여도와 화제성도 고려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어 대중의 호감을 사거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데 기여한 스타에게 MC 자리를 맡긴다. 이들은 대부분 메인 MC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12월30일 열리는 ‘2017 SBS 연예대상’ MC로 전현무 추자현 이상민이 발탁됐다. 전현무는 ‘판타스틱 듀오2’를 진행중이며, 추자현은 ‘동상 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을 통해 국내 활동을 성공적으로 재개했다. 이상민은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전성기를 맞았다. 12월31일 ‘2017 SBS 연기대상’은 ‘미운 우리 새끼’ ‘TV 동물농장’의 신동엽과 올해 초 20%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꽃속말’의 이보영이 진행을 맡는다.

‘2017 KBS 연기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메인 MC로 전현무가 유력하다. ‘2017 MBC 방송연예대상’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수려한 모습을 공개해 호감을 산 모태 한혜진이 나선다. 그의 선정 배경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열정 언니’ 같은 친근한 매력과 각종 뷰티프로그램을 통해 인정받은 말씀씨가 영향을 줬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인도영·유진한 기자

박수진·태연, 특혜논란…왜?

박수진, 부모 동반 신생아실 출입 인정 사과 구급대원, 추돌사고 낸 태연 과한 배려 시골

연기자 박수진과 가수 태연이 ‘유명인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 시민도 함께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난과 함께 동정론이 맞서고 있다. SNS 등을 통해 연예인들의 언행이 즉각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같은 논란이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추이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박수진은 최근 아이를 출산한 뒤 한 종합병원 신생아실 면회 등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한 아기의 죽음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아기의 부모만 면회가 가능한 신생아 중환자실을 박수진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병원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후에도 최초 글 작성자의 억울함을 담은 주장이 이어지면서 누리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 비해 박수진은 논란의 원인 제공자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반의 인식 수준을 뛰어넘는 배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태연

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것처럼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좀 더 세심하고 겸허한 태도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태연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대로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논란에 휩싸였다. 태연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 등이 피해자들에 앞서 태연을 먼저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경찰과 구급대, 견인차량 기사 등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태연이 ‘과도한 배려의 미필적 고의 수혜자’로서 낙인찍힐 우려를 낳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연예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태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셈이다. 일부에서는 만일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시선과 함께 그들에게 과도한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잣대를 들이대는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방탄소년단, 역대급 팬미팅 연다

1월13·14일 아시아 팬들과 고척돔 데이트 12월엔 고척돔서 ‘윙스 투어’ 파이널 무대

세계를 휩쓴 그룹 방탄소년단이 팬덤 다지기에 나선다.

방탄소년단은 내년 1월13·14일 이틀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해피 에버 애프터’라는 이름으로 팬미팅을 연다. 이번 팬미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글로벌 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미’(ARMY)라는 팬클럽이 중심이 된 강력한 팬덤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방탄소년단은 이날 열리는 팬미팅을 통해 한결같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아미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라는 기획의도에 따라 팬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팬미팅에 앞서 12월8일부터 1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윙스 투어’ 파이널 무



방탄소년단

대에 오른다. 이날 열리는 콘서트 역시 올해 2월 공연의 양코로 개념이지만, 입장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

팬미팅 입장권 역시 12월 중순 예매를 시작하는 동시에 매진될 가능성이 높다. 1년 넘게 기다려온 팬미팅이고, 지난해와 비교해 일자가 전혀 달라진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팬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29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최신앨범 ‘러브 유어 셀프 승-하’는 빌보드200에서 198위를 기록, 순위권에서 벗어난 지 3주 만에 해당 차트에 재진입했다. 아울러 빌보드 소셜5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통산 50번째 정상에 차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현장.jpg

추워마져 녹인 ‘제시카 공방패션’



계절을 잊은 ‘하의실종’ 패션이다.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29일 블랙 무스탕 재킷에 화이트 미니원피스를 매치해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한 패션브랜드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차 대만으로 출국한 제시카는 청순하면서 섹시한 매력이 공존하는 스타일링으로 패셔니스타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인천국제공항 | 김진한 기자 kwangshin00@donga.com